

# 혁명적 변화에 나타난 NEW FASHION의 발생 및 특징에 관한 연구

-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을 중심으로 -

곽 태 기

세종대학교 생활과학부 전임강사

## A Study on the Generation and Characteristic of New Fashion Found in Changes in Revolutionary Fashion

- Focused on the New Look of Christian Dior -

Tai-Gi Kwak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00, 11, 27 투고)

### ABSTRACT

Particular historic events such as revolution and wars have given rise to fashion. Luxurious costume representative of the aristocratic culture since the French Revolution was changed into popular look with the collapse of the royal regime. With the restoration of the royal regime by Napoleon, rapid changes associated with the reemergence of the costume of aristocratic brought an opportunity for the revolutionary fashion of bringing about new fashion in the fashion field. Especially, the New Look presented by Christian Dior in 1947 shortly after the Second World War would be the typical style of revolutionary fashion.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ew fashion regarding how new fashion occurred and developed in changes in revolutionary fashion after the Revolution and the War, in conjunction with the zeitgeist(time split) of rapid social change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nd out the significance of fashion as to how and why fashion changed in relation to the factors of changes in fashion in the history and create new future fashion by reinterpreting new aesthetic consciousness about the characteristic of new fashion found in changes in revolutionary fashion.

Key Words : 혁명적 패션(revolutionary fashion), 뉴 패션(new fashion), 시민의식(civil consciousness),  
신 여성성(new femininity), 시대적 저항정신(revolting spirit of the times), 새로운 순수성  
(new purity)

## I. 머릿글

각 시대의 패션의 변천요인에 관한 분석에는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시대별로 복식의 변화를 좇아 논리적 과정을 따라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패션은 인간 생활의 사회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측면에서 효용성과 기능주의 측면, 변화, 자아고양, 성적 추구에 대한 욕망, 개인적 선호, 매스 미디어와 예술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에 발 맞추어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사회적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은 패션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이동성의 변화되는 유동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나타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패션스타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변적인 스타일들은 반-유행적 스타일로 언급될 수 있으며 고정적이고, 불변적이며 경직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나타낸다.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에 따르면 유럽의 패션은 로마제국 말기 이후 1100년경까지, 즉 약 7백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sup>1)</sup>. 따라서 과거에 유행의 변화들은 매우 느렸다. 과거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사회 내 유행 변화를 저지하는 요인이 강하고 촉진 요인이 약하였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유행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만큼 변화 속도가 느렸었다<sup>2)</sup>. 패션 변화의 속도는 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상승해왔고 20세기 패션스타일들은 최신유행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속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사회에 확산되었다.

복식 양식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복식 양식 그 자체의 내재적 자율성에 의하여 변화된다는 입장과 둘째는 외부적인 힘, 다시 말하여 사회 문화적 사건이나 특성에 의하여 양식이 변화한다는 것이 그것이다<sup>3)</sup>. 패션의 변화는 항상 진화하는 성질이 있어 그 변화의 모습은 급속히 변화하기보다는 항상 한 스타일에서 다른 스타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진화적 패션(evolutionary fashion)이라 하고 이러한 원리에 대한 예외는 혁명적 패션(revolutionary fashion)이라 한다<sup>4)</sup>. 예를 들어,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사회 변혁을 일

으키면서 패션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프랑스혁명 이후 귀족문화를 대변해온 호화로운 의상이 왕정 붕괴와 함께 서민풍으로 바뀌었고, 나폴레옹의 왕정 복고와 함께 귀족풍의 의상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과 관련한 급격한 복식변화들이 혁명적 패션 변화를 가져오는 New fashion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접어들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그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그리고 신속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인 제 1, 2차 세계대전은 급변하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 같은 영향들이 복식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 발표한 the New Look은 대표적인 경우의 혁명적 패션 스타일인 것이다. 사회 문화적 사건이나 전쟁 혹은 혁명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큰 사건으로 혁명적 패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복식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혁명적 패션 변화에 나타난 New Look의 발생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형식적 변화에 관한 고찰에 그쳤을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으로서 이들의 상관성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혁명적 패션변화에 나타난 New fashion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저항정신을 표출한 New fashion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New fashion의 혁명적인 변화의 요인 및 특징을 시대정신과 관련하여 고찰함으로써 혁명적 패션으로서의 New fashion의 새로운 미의식을 재인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 범위는 역사적 사건의 사회 변혁을 초래했던 프랑스혁명 이후부터 제 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이 발표되어 전개된 직후까지 급격한 패션의 변화들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주로 국내·외 문헌과 논문자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혁명 및 전쟁직후에 나타난 혁명적 패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997년 런던 전쟁박물관에 특별 기획전 되었던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 의상전시회<sup>5)</sup>와 Victoria &

Albert 의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의상들을 대상으로 분석 활용하였다.

## II. 혁명직후에 나타난 혁명적 패션의 발생 및 특징

### 1. 프랑스혁명 직후의 New fashion의 발생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궁정의 사치와 독재적 권력에 의한 빈곤과 재난, 전쟁의 패배 등에 의한 민중의 불만에 의해서 생긴 역사적 사건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변동을 초래했다. 혁명은 단시일 내에 귀족들의 특권을 일소했고 그 후부터는 특권 계급의 세금 면제, 귀족 계급에 게만 개방되었던 직업 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sup>6)</sup>. 프랑스 혁명은 신시대의 봉화이고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 삼색기의 사상은 프랑스로부터 전 유럽의 그리고 이윽고 전 인류의 이상의 상징으로서 확대해 갔다<sup>7)</sup>. 이와 같은 자유주의는 평등사상을 통해 사람들은 왕권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생활양식에 있어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남녀의 복식스타일에 자유스러운 간소한 복장으로 표현되었다. 프랑스 혁명이후 19세기 초기까지 혁명전 기간의 유행한 의상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이제까지의 엄격히 시민에게 금지하였던 귀족 복식문화가 폐지되면서 호화로운 귀족풍이 사라지고 복식사에서 '혁명'이라 할만큼 극적인 시민의식의 혁명적 패션이 출현하게 되었다.

1794년 자코뱅당의 총수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가 처형된 후 단두대(guillotine)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자 사람들은 다시 삶의 기쁨에 젖기 시작해 생활은 다시 호화로워졌다. 그러나 국가의 재산은 소수의 부르주아에게 편중되어 있었고 광범위한 근로대중은 아직 이러한 생활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극도의 항락에 대한 물두와 사회환경의 불균형은 생활의 모든면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식은 가장 손쉬운 감정의 표현 대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기이한 형태와 사치가 남용되기 시작한 것이다<sup>8)</sup>.

## 2. 프랑스혁명 직후의 혁명적 패션 변화에 나타난 New fashion의 특징

### 1) 남자복식에 전개된 New fashion

혁명으로 이어지는 공포정치의 시대로 인해 당시 대인들은 의복을 의도적으로 멋을 부리기보다는 평민답게 보이기 위하여 고심했다. 남성의 복장은 정돈되지 않았고 무릎길이의 바지는 사라지고 보석이나 단추 등 일체 사치와 허식은 배격하고 생활양식은 단순화 되었다<sup>9)</sup>. 혁명전의 남성복식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부드러운 실크로 만든 크라바트(cravatte)와 주름(ruffled)셔츠를 입고, 하이칼라로 된 상의 프락 아비에(frac habille)와 꼭 끼는 바지 퀴로트(culotte)의 차림이었다. 이러한 어두운 색상의 트리밍된 정장과 단정한 버클(buckled)의 신발은 엄숙하게 보이게 하였고, 금으로 된 버클과 단추는 어두운 정장에 유행되었던 장식으로도 더욱더 귀족의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혁명파들은 귀족패션이었던 바지 culotte에 반발하여 실직적이고 간소하게 입을 수 있는 긴 바지인 판타롱(pantalon)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즉, 썸 퀴로트(sans culotte)는 귀족풍의 몸에 꼭 끼는 무릎 길이의 바지가 아닌 시민복의 판타롱으로 헐렁한 긴 바지였다. 위에는 카르마놀(carmagnole)이라는 상의를 입고 목에는 여전히 cravatte를 걸치고 웨이스트 코트는 검소한 직물을 사용한 더블 여밈이었다.



(그림 1) Thomas Gainsborough, The morning walk, <National Gallery>, 1785

헤어도 포머드로 머리를 다듬지 않은 더부룩한 자유스러운 스타일이었으며, 신발은 두꺼운 나무신발이었다.<그림 2> 확실히 프랑스혁명에서는 혁명적 패션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다. 또한, 공포정치가 끝난 후 제정 시대가 되면서 왕정주의를 지지하는 젊은층의 복식은 놀랍게도, 영국풍 전원의상<그림 3>의 기묘한 모방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혁명 이후 신고전주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의 추구로 남성의상에서 프랑스 귀족패션을 뒤로하고 영국풍 전원의상들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즉, 영국 귀족계급들은 그들의 전원풍의 활동으로 인해 유럽 패션중심지에서 유행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활동적 형태의 의상을 필요로 했다. 영국 귀족계급들은 그들의 의상으로부터 자수를 포기했고, 팔목과 목에 있는 레이스와 주름(ruffles)을 폐기했고, 견고한 슈즈나 부츠를 신고 흰 실크 스타킹으로 대체시켰다. 원시적 형태의 토퍼(topper)의 실크모자는 평이한



(그림 2) 혁명군의 복식(sans-culotte), <서양복식사>, 1789-1791



(그림 3) Thomas Gainsborough, Mr and Mrs Andrew, <National Gallery>, 178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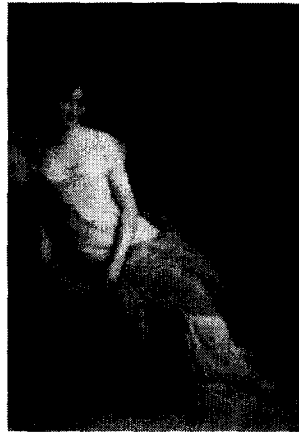
삼각형의 모자로 바꾸었다. 영국패션은 프랑스 앙크르와야블(French Incroyables)<그림 4>의 형태로 영향을 주어 완전히 과장되어서 이색적이고 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 4) chemise gown과 Incroyable의상, <서양복식사>

## 2) 여자복식에 전개된 New fashion

프랑스혁명 직후 프랑스에서 여성 의상은 단순성과 도덕적 및 신체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여갔다. 격동하는 사회정세는 남녀의 의복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근세까지 가는 허리, 코르셋, 부풀린 페티코트, 높은 머리형을 특징으로 하던 여자복식은 혁명 직후 전(前) 세기의 속옷과 유사한 슈미즈(rove en chemise)<그림 5>로 알려진 스타일을 착용했다.



(그림 5) madame Recamier, chemise gown, <서양복식사>

슈미즈 가운데이라 불리는 이러한 드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키톤을 모방하려는 경향으로 가슴을 더 깊게 파고 더 부드럽고 얇은 옷감을 사용하여 육체미를

나타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자연적인 동경에 의해 고대관(觀)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그 시대의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 Neo-Classicism) 화가들의 화풍과도 일치했다. 그들은 미적인 영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화국(New Republic)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그리스에 의존했다. 이런 경향은 복식에서 혁명정신과 일치했기 때문에 지나친 화려함과 방종에 대한 반동으로 단순함과 자유를 추구하는 고대풍으로 나타났다.

혁명기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전통의 사슬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로 복식에 있어서도 과거와의 단절과 혁명적인 패션의 등장이었다. 혁명 이전의 스타일은 사라졌다. 자수가 있는 코트, 금장의 가운, 가발, 발분, 그리고 장식적인 헤어스타일도 빨간 손톱도 일제히 사라졌다. 혁명후 <그림 5>에서처럼 여자는 얇은 직물로 만든 하이웨이스트에 스트레이트 라인의 가운을 입고 있으며, 남자복도 단순해지고 장식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혁명기 복식의 단순함은 '자연에의 귀의'라는 시대의 외침의 반영이었다. 이런 기존의 고대풍이 정비되어 제국의 번성과 함께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깊게 파인 목둘레선, 하이웨이스트에 짧게 부풀려진 소매, 좁고 긴 스커트, 호화로운 직물로 몸을 드러내는 화려한 취향의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로 전개되었다<sup>10)</sup>.

19세기 동안에 5개의 중요한 변화들이 여성의상에서 일어났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8세기말 프랑스혁명 직후 발생했던 첫 번째 변화는 '엠파이어(Empire)' 허리의 도래였다. 두 번째 변화는 1820년대 초에 일어났는데 이때 허리는 인체의 정상 위치까지 내려왔으며 코르셋(corset)을 다시 보편적으로 착용했다. 세 번째 변화는 '크리놀린(crinoline)'의 출현과 함께 1850년대 일어났다. 네 번째 변화는 버슬(bustle)의 출현으로 1870년대 초기에 일어났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변화는 '벨 스커트(bell skirt)'의 출현과 함께 1892년에 일어났으며, 이러한 출현은 주기적으로 진화적 복식변천으로 유행은 계속 전개되었다.

이러한 진화적 변화의 일반적인 수용과 더불어 흥미로운 패션의 혁신이 아멜리아 블루머(Amelia Bloomer)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름

을 따서 Bloomer라고 곧 이름 붙여진 의상<그림 6>을 고안해내고 착용했다. 이것은 약간 무릎밑에 닿는 느슨한 튜닉(tunic)밑에 착용된 헐렁한 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즉 1840년말에 착용했던 무거운 언더패티코트들에 대한 실용적인 대체물이었던 것 같다. Bloomer는 바이런의 숭배와 프랑스의 알제리아 점령후에 녹아있는 아름다움의 인기있는 동향풍의 판화(版畵)에서 영감(靈感)을 받았다고도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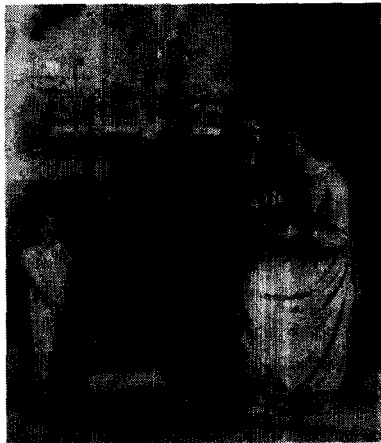


(그림 6) Amelina Bloomer, < A History of Fashion >, 1850년경

여성의상을 개혁하려는 이러한 '블루머'바지의 시도는 미국에서 일부 여성들이 고수했지만 유럽의 패션계에서는 흥분, 즐거움과 조소, 적대감이란 상반된 반응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New fashion에 대한 비판은 여성들도 바지를 착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여성해방에 대한 위협한 감을 느낀 빅토리아조(朝) 중기의 남성들로부터였다. 여성이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다. 명백히 여성의상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시기상조였고, 실패였다. 거의 50년후에야 '여자용 반바지(bloomers)'가 자전거를 타기를 위한 사이클링 웨어로서 채택되었다<sup>11)</sup>.

복식 역사에 있어 이런 변화의 또 다른 혁신적인 시도는 19세기말 라파엘 전파(Pre-Raphaelite)화가의 패션이었다. 이 전파의 창시자들은 단테 가브리엘 로셋티(D.G. Rossetti), 헌트(W.H. Hunt), 밀레스(J.E. Millas), 윌리엄 마이클 로셋티(W.M. Rossetti)

등이었다. 그들은 아카데미 예술을 지배하고 있었던 16세기와 17세기 르네상스 및 후기 르네상스의 영향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아카데미한 그림들은 모두 밝음과 어두움이 늘 같은 원리에 따라 묘사되었고 똑같은 조명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왔으므로, 그것은 개인의 독창성을 질식시키는 체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다<sup>12)</sup>. 그들은 예술을 순수함으로 지향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다 현신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한 화가들은 그들 그림들의 색스피어적, 성서적, 그리고 자연적 주제들을 묘사하는데 필요한 의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했다.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크리놀린은 가장 부적합했다. 나중에 '라파엘전파'로 불리워지기 위해서 정확한 의상 형태를 기록했던 것은 D.G. Rossetti였다. 그녀의 '성모마리아의 소녀기'〈그림 7〉에서 어린 동정녀의 의상에서 의상형태를 볼 수 있으며 후에 패션 복식연구가들에 의해 라파엘로 전파의 의상으로 표시되었던 것과 스타일 면에서 매우 흡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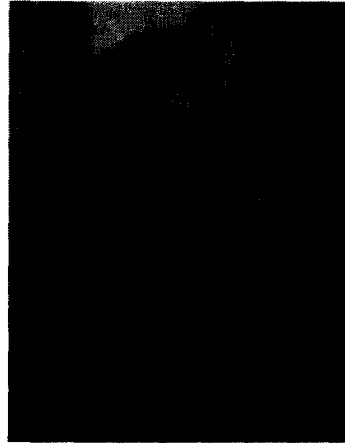


(그림 7) D.G. Rossetti, 성모마리아 소녀기, <19세기의 미술>

1886년경 비에타 베아트리스(Beata Beatrix)의 〈그림 8〉에서 Rossetti는 Beata Beatrix이 크리놀린을 착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그녀 의상의 소매들이 어깨까지 바로 위에 올려있고, 그녀의 보디스(bodice)의 정면을 드러내는 드레이퍼리(drapery)의 배치는 그것이 매우 편안한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상은 혁신적인 변화였으며, 그 당시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신

랄한 비난이 퍼부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라파엘 전파의 예술적 복식 운동(artistic dress movement), 혹은 미적 복식 운동(aesthetic dress movement)이 그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패션에서 벗어나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미적 복식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sup>13)</sup>.



(그림 8) D.G. Rossetti, Beata Beatrix, <19세기의 미술>, 1863

### III. 전쟁직후에 나타난 혁명적 패션의 발생 및 특징

#### 1. 세계 1, 2차대전 직후의 New fashion의 발생 배경

세계 1,2차 대전은 사고방식, 태도, 사회, 경제, 정치, 사람들의 심리 및 패션 등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세계 1차 대전이 여성해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남성들과 동등함을 자각하게 된 여성들은 다시 이전의 여성복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전쟁기간동안 실용주의적 패션이 등장하였고 호된 내핍생활과 정신적 긴장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다움이 강조된 비실용적인 의복이 반작용으로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스포츠 웨어와 저지(jersey)가 진보적인 여성패션을 진보화 했고, 크

리놀린, 과고다 허리, 그리고 끝이 좁아지는 헴들은 여성패션을 보수화시켰다. 교차적인 흐름들은 패션 사상 가장 기묘한 실루엣을 가져왔다. 여성은 키가 2피트가 되는 독수리 깃털의 모자, 땅에 닿는 종아리 길이의 드레스를 착용했으며 전부가 원숭이 모피 밴드의 템페스트로 둘러져 있었다. 저녁에 여성은 시폰(chiffon)의 늘어진 넵피(nappy)위에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의 tunic dress 또는 모피와 금속사의 층들로 된 짧은 크리놀린을 착용하기도 하였다<sup>14)</sup>.

전쟁직후 세계는 삶에 대한 열망으로 휩싸였고, 사회적인 개혁보다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여 1920년대를 재즈와 광란의 시대라 부르기도 하였다. 탱고 춤이 전후 사람들에게 열광의 대상이 되었고 이때 유행한 노출된 드레스는 춤에 에로틱한 매력을 덧붙였다. 또한 전쟁이 여성해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남성들과 동등함을 자각하게 된 여성들은 수세기동안 자신들을 묶어 놓았던 종속에 대한 저항으로 머리를 잘랐다. 이런 소년스러움을 나타낸 짧은 머리, 짧아진 스커트의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이 창출되었다. 이것은 가슴, 허리 힙 모두를 억제한 일자형의 슬림(slim)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여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Flapper Style이라고 한다. 그러나 1925년부터는 가장 짧아졌던 스커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여성적인 분위기의 가르송느 스타일(Garçonne Style)로 변해 갔다<sup>15)</sup>.

이러한 변화는 전후에 따른 혁신적인 패션변화로 그때까지 패션역사에 있어 패션이 가장 빨리 변화된 시기였다. 따라서 이시기의 혁신적인 패션 변화에서 발생했던 변화는 세계 2차대전 후에 일종의 혁명적인 패션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1차대전 전후에 나타난 사회변화의 성격을 세계 2차대전으로 이동하여 전쟁동안에 변화했던 변화들의 성격을 비교하고자 한다.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발생했던 급격한 사회변화들의 시대적 정신과 관련하여 혁명적 패션을 획기적으로 발생시킨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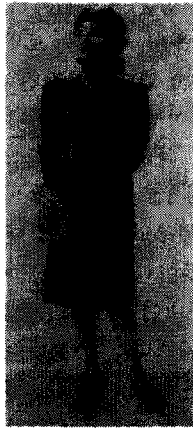
## 2. 전후에 전개된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의 특징

### 1) 억제와 궁핍으로부터의 탈피

세계 2차대전 동안에 발생했던 의상의 변화들은 그 시대의 조류가 의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했다. 전쟁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실용주의적 패션이 등장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유니폼식의 재단이 대중을 이루어, 유니폼, 보일러공의 의상, 점퍼, 스커트들을 착용했다. 1차적인 관심사는 기능적인 것이었으므로 여성다움의 추구는 전쟁 다음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물자부족이 극심해지자 영국 정부는 실용법 제정으로 의복 제한제의 의류품 할당 배급을 1941년 6월부터 실시하였다. 계층을 불문하고 의류품은 부득이한 보충분을 제외하고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 지내야만 했다. 계급에 의한 복장의 차이는 없어졌다. 스타킹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부분의 여성은 맨발로 다녔고, 스타킹의 봉제선으로 보이기 위해 다리 뒤쪽에 선을 그리는 여성도 있었다. 이 물자부족에 의한 내핍생활은 유럽 전체에 해당되었고 패션의 추구는 허용되지 않았다<sup>16)</sup>. 역사상 처음으로 패션이 특권이 있는 계층으로부터가 아니라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부터 발생했음을 주목해야한다<sup>17)</sup>.

영국의 상무성은 '패션그룹'을 독려하여 여성의 사기저하를 막는 방법을 고안시켰다. 이 그룹은 이미 1925년에 결성되어 있었는데 1942년에 법인조직이 되었다. 그 멤버들인 노만 하트렐 등의 쟁쟁한 디자이너들은 극히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실용복을 고안했다. 이것은 전시중과 전후의 수년간, 실제로 이용되었다<sup>18)</sup>. 이러한 디자이너들은 얼마 안되는 소재로 매력적인 실용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게 목적이었다. <그림 9>에서 전쟁시의 표준복이 제시되고 각 종 의상에 필요한 소재의 양과 종류, 심지어는 스커트의 길이와 폭까지도 명시되어 있었다. 꼭 필요한 비실용적 의상(웨딩드레스 등) 역시 법이 정하는 제한규정에 따라 만들어야 했다. 전쟁이 종식되자 침체되었던

경제와 사회의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패션계는 다시 평화시절의 화려함과 이에 대한 향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주름을 잡고 바이어스를 달던 30년대 초반 스타일에서 벗어나 스커트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 후 전시중의 미국에서 보다 진전을 보게 되었다. 유럽 여성들 또한 딱 끼어 체형이 드러나는 스커트보다 여성적으로 부드럽게 선을 그리는 스커트를 갈구하고 있었다<sup>19)</sup>.



(그림 9) 영국의 전시표준복, <복식과 패션>

1947경 더 새로워진 모습의 스타일이 절제적인 영국에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점차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졌다. 1947년 봄 프랑스에서 Christian Dior가 발표한 the New Look(그림 10)은 전체적으로 corset과 패딩을 요구했고, 여성으로 하여금 한번 더 의상에 구속되어 아름다움을 되찾게 해주었다<sup>20)</sup>. Lucien Lelong에 있는 그의 살롱에서 발표한 컬렉션에서 새로운 실루엣은 둥근 어깨, 가는 허리, 활짝 펼쳐지면서 길어진 스커트로 8-line을 이루는 새로운 모습, 즉 혁명적 패션의 New Look이었다<sup>2)</sup>. 그는 컬렉션에서 두 개의 라인을 발표하였는데 'Corollar'와 '8'이라는 숫자의 테마였고 주요한 색상은 검정색, 회색, marine blue와 실크 자체의 색이었다. 『Elle』지에서는 이 새로운 모습에 의하여 'corollar' 라인이 생기있는 걸음과 춤을 연상시키며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주름진 부드러운 종 모양의 가슴이 있다고 했다. 이 'corollar' 라

인을 카멜 스노우(Carmel Snow)가 'New Look'이란 말을 사용한 이후 모든 잡지와 심지어 프랑스인 까지도 'New Look'이라고 부르게 되었다<sup>22)</sup>. 'New Look'은 여성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달래주는 가장 여성적이고 아름다움을 위한 위안이 되었다. 그것은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패션의 혁명이었다.



(그림 10) Christian Dior, The New Look, <Victoria & Albert Museum>, 1947.spring

## 2) 신 여성성을 위한 New Look

1940년대는 세계 2차대전과 전후의 후유증으로 어떤 면에서 패션의 진보에 일시적인 방편으로 실용주의적 Look을 형성했다. 여성복 쿠뛰리에(couturier)들은 평상복의 경우 우아함(Elegance)과 실용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이브닝 가운의 경우에는 화려함을 유지해야만 했다<sup>23)</sup>. 전후 여성들의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사실상 1940년대는 패션과 여성다움을 위한 중추적인 시점이었다. 그 기간은 갈등에 대한 배경이었으며 그 결과는 여성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법을 초래했고, 여성의 해방운동(Women's Lib Movement)과 20세기 말의 특징인 성(性)들간의 변화된 역할 관계에서 논쟁을 일으켰다<sup>24)</sup>. 이러한 변화된 태도들은 계속 끊임없이 패션에 영향을 미치었고, 실용주의적 특이 지배하는 패션에 좌절을 느낀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에게 Dior의 'the New Look'은 신개념의 여성다운 이미지의 능동적인 여성성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였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에 대체했던 태도들은 보다 급격한 것이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이전의 개념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여성의 신 개념을 착용하는 것이였다.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은 새롭고 여성적인 매력과 해방을 추구하는 시대적 정신으로서 여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상하 한 벌의 수트는 여성들을 위한 가장 여성적이고 금지되었던 요소들의 집합이였다<sup>25)</sup>. 복식학자인 Madge Garland는 'New Look'은 '400년 동안 문명세계를 이끌었던 프랑스 기호(취향)의 일몰(日沒)의 저녁놀이, 즉 baby doll, mod. 그리고 미니 스커트들이 나타나기 전 마지막 오염한 여성다운 옷이라고 했다<sup>26)</sup>. Christian Dior의 새롭게 디자인된 여성성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어깨라인, 여분의 곡선을 내기 위해서 패드를 넣은 가슴, corset으로 조여진 허리, 안감으로 놓여진 캄브릭(cambric)과 타페타(taffeta)의 외형위로 부풀은 허리를 강조했다. 그것은 전시(戰時)의 외형과는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풍요로움, 부(富), 그리고 새로운 여성다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양식이였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보이는 모양이였지만 사실상 어깨와 힙의 패드들, 패드를 넣은 브래지어, 그리고 평평하게 된 허리 거들(girdle)들 때문에 완전히 인공적인 것이였다<sup>27)</sup>. 이러한 영향은 그 시대의 독특한 미의식이 디자인에 영향을 준것이라고 할 수 있다.

Christian Dior는 New Look에 대하여 '나는 둥그스런 어깨, 풍만한 여성다운 가슴 그리고 엄청나게 펼쳐지는 스커트, 보다 위에 놓여있는 핸드 스팬(hand-span)허리를 가진 옷을 꽃 같은 여성을 위해서 디자인했다.'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종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섬세한 수공과 위대한 전문 기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재단 기법은 약간의 복잡한 새로운 기법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옛 기법으로의 복귀로 제작되였다<sup>28)</sup>. 이러한 섬세한 제작 기법을 통해 Dior는 New Look의 형태가 건물처럼 복식이 여성의 균형을 아름답게 구성되기를 바랐다. 그의 New Look은 획기적인 엘레강스 이미지의 부활을 시킨 신 여성성을 위한 진정한 아름다움의 여성복으로 확립시켰다.

### 3) 시대적 저항정신의 혁명적 패션

길고 풍만한 스커트와 타이트한 허리를 가진 Cristian Dior의 the New Look은 패션 역사에서 이것이 일어났던 새로운 패션 양식의 가장 영광스러운 couturier였다. 그의 New Look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復古적인 귀족적 취향의 빅토리아풍으로 엘레강스한 여성의 스타일이였다. James Laver는 뉴욕을 여성들이 가혹한 전시의 삶의 어려운 현실로부터 여성의 마음속에 소중히 여겨지고 보호받는 생활이 좋은 옛 시절로 뒤돌아가려는 열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뉴욕을 향수적으로 보았다<sup>29)</sup>. 여성들은 이러한 뉴욕을 보자마자 그의 패션 혁명에 매료되었다. 그것은 전후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 New Look의 제시가 시대적인 적절한 타이밍(timing) 때문에 성공적이였다<sup>30)</sup>.

남성의 복장에도 '에드워드 스타일'(Edwardian look)이 동시에 옛날 신사의 동경을 반영하는 유행이 있었다. 에드워드 스타일은 목까지 단추를 잠그는 꼭 맞는 긴 상의와 좁은 바지, 그리고 너무 작을 정도로 보이는 테가 올라간 top hat으로, 1905년 경의 에드워드 스타일과 다르지 않다. 신에드워드 스타일은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 즉, 영국이 새롭게 만든 복지국가의 이념과 그것에 수반되는 새로운 세제(稅制)에 대한 반동이였다<sup>31)</sup>. 패션은 새로운 방향들로 움직이기 위한 저항의 자유와 과거로부터의 향수를 제공한다. 비록 옛 패션들이 부활할지라도 그 옛 패션들은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덧입고 부활한다. 더구나 그것은 스스로의 큰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고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흐름의 출현은 또 하나의 테디보이(Teddy boy) 스타일로 창출되고 있었다. 그것은 신에드워드 스타일과 외견상 닮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스타일은 전후의 혼란속에서 거의 범죄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계층에게 열광적으로 수용되였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이다<sup>32)</sup>. 복식 역사에 있어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의한 시대적 정신이 New Look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은 혁명적 패션의 성격이며, 이러한 흐름의 상태는 사회가 진보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급격한 사회 변혁기

간에 New Look이 발생하며 이것은 시대정신과 패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변동이 심했던 60, 70년대에 나타나다. 이와 유사한 예들은 하위문화 패션에 나타난 Punk Look<그림 11>의 경우에도 실업과 경기침체 시기에 반발적인 시대적 저항정신을 분명히 나타냈다. Punk Look은 미래가 불확실한 경제체제 하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정부에 대한 하나의 공격으로 이해 될 것이다<sup>33)</sup>. 그것은 그 당시 젊은이 사이에 매우 분명하게 시대적 저항정신을 묘사했다.



(그림 11) Joe Conish, Punk Look

Malcolm McLaren이 Sex Pistol를 구성한 이후 1977년 영국에서 나타났던 펑크록의 노래는 반정부적인 가사로 영국에서 방송 금지되었으나, 흥미롭게도 'God save the Queen'은 대 유행하였고, 이 문구가 적힌 티셔츠가 하나의 펑크 스타일로 등장하게 되었다<sup>34)</sup>. 그것은 무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Punk의 정신은 펑크음악에 표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절망적인 사회에 대한 시대적 저항정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혁기간 동안에 New Look은 '혁명적 패션'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펑크음악은 일상생활에 포함되었고, 패션시장에 흡수됨에 따라 무정부적 시민으로서의 상징성을 상실했다. 그것은 이미 소비주의 사회에 있어 패션 산업에 편입되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중적인 유행이 되었다.

#### 4) 대중을 위한 New Look

1948년이 되자 영국, 홀랜드,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New Look의 스타일이 모든 상점에서 등장하였다. 패션을 선도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제조업자들은 Christian Dior show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New Look의 생산에 뛰어들었고 대중화는 순식간에 이뤄졌다<sup>35)</sup>.

전후 기성복 제조업자들, 도매업자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의 부활은 소비주의 사회에 있어 자신들의 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중적인 소비의 확산을 유도하였다. 또한 패션 잡지와 저널리스트들은 디자이너와 함께 New Look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집중토록 유도했다. 매체는 유행을 평가하고 발표된 스타일을 패션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패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들은 처음에는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었으나 매스컴에 의해 대중에게 소개되고 대량생산에 의해 싼값으로 대중에게 보급되고 구매됨에 따라 디자인은 이제 고급 문화가 아니라 대중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게 되었다<sup>36)</sup>.

제2차 세계대전이라 서구사회는 놀랄 만큼 급속도로 변해왔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서구사회를 어느 때보다도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시켰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놀라운 유통구조, 이것은 이른바 광범위한 사회를 전개시켰다<sup>37)</sup>.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이 특권계층의 성숙한 고객을 대상으로 했지만 New Look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져 비록 극단적인 New Look이 대량생산의 패션처럼 일반적인 착용을 위해 변형되었다. 그것은 전후 전체적인 패션의 사이클의 급속화를 촉발시켰다<sup>38)</sup>. 따라서 이러한 패션 혁명에 매료된 일반 대중들은 다양한 형태와 소재에 의해 대량생산된 복제품의 패션이 소비되고 있었다. 따라서 New Look의 형태가 스타일의 변형을 통해 서서히 의상을 부드럽게 하고 비구조화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대량 소비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sup>39)</sup>. 전체적으로 볼 때 New Look은 대중 패션에 기여한 개혁적인 반영이 되었다.

New Look은 그 후 10년동안 새로운 형태의 순

수성으로 스타일을 변모하게 하였다. New Look의 초기 충격후 Dior는 여성성을 확대시키기 시작했고 New Look은 더욱더 새로운 라인으로 탄생시켜 라인 시대를 주도했다. 라인으로 인한 기본적인 실루엣의 변화는 허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슬림 웨이스트(slim waist), 하이 웨이스트(high waist), 로우 웨이스트(low waist)의 순서로 경과하면서 복식사적 회전을 보여주었다<sup>40)</sup>. 각 라인에는 여성을 코를라로, 라이나로, 튜입으로, 꽃으로, 텐트로, 아워 글라스모양으로, 파리의 과거나 지그재그로, 롱라인으로, 사이클론으로, 또 날개, 비행기, 환상, 가위, 풍차, 외국풍 등 수 없이 새로운 라인으로 재구성하였던 것이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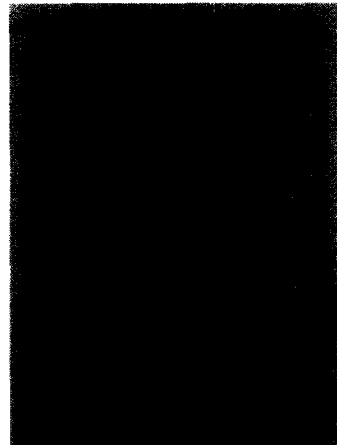
##### 5) 새로운 미학적 양식의 New Look

현대 디자인이 전개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정치, 경제, 산업, 과학, 사상 등에 있어서의 여러 혁명적 변화들은 예술상의 미의식과 양식, 주제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모더니즘의 중대하고 전면적인 변화였다<sup>42)</sup>. 1차 세계대전 후에 발생했던 변화는 2차 세계대전후에 패션과 건축, 가구, 공예 등의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모더니즘으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sup>43)</sup>. Christian Dior가 발표한 the New Look이 과거의 빅토리아풍으로 제작된 엘레강스한 여성적인 스타일이었지만 보다 미적으로 모더니즘의 엄격한 면모를 변모시키려고 했다. 모더니즘이 과거에 대하여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Harskamp가 지적하듯이 '전통을 재평가하고 재음미하며 창조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과거의 업적을 파괴하려는 공격적 충동과 마찬가지로 모더니즘의 한 단면이다. 예술가들이 자신들을 압도할 만큼 풍부한 과거 유산의 무거운 짐을 인식하는 것은 곧 모던 기질의 일부이다. 모더니즘은 전통의 짐에 대한 예술가의 깊은 관심과 함께 과거의 짐에 대한 예술가의 불안에 그 뿌리를 박고있다<sup>44)</sup>. 즉, 모더니즘 예술에서 보여지는 의상에서의 New Look은 새로운 예술적 전통과 새로운 미학적 시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의 디자인은 새로운 실루엣의 변모를 가져오게 되었다.

비록 1957년 Christian Dior가 사망한 후 New Look은 멀어져 갔지만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의 디자이너들은 New Look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순수성으로 스타일을 변모시키려고 하였다<sup>45)</sup>. 이러한 Dior의 조형적인 실루엣의 영향은 모더니즘 예술에서 나타나는 디자인들의 작품들에서 New Look의 유사성과 상호적 영향을 미친 조형적 특징의 변모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새로운 미학적 영역의 형태 변화로서의 New Look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 디자인 형태 변화의 새로운 미학을 띠는 디자이너들은 유리잔에서 Per Lutken, 도자기류에서 Stg Lindberg, 실버에서 Henning Koppel, 가구에서 Charles Eames, 그리고 건축에서 Ero Saarien를 포함했다. Christian Dior의 the New Look에서 보여지는 <그림 10>의 아워글라스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은 Waistl Cooper가 디자인한 허리모양을 한 꽃병<그림 12>과 Arle Jacobsen의 개미의자(Ant chair)<그림 13>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자유로운 유기적인 형태의 극적인 변화를 표출한 케네디 공항에 있는 Saarinen의 조각적인 TWA 터미널<그림 14>은 순수한 New Look이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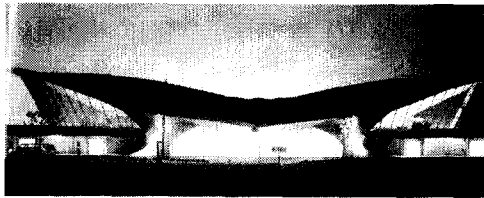
1951년 Dior는 가을에 Long Line<그림 15>을 발표하였고, Long Line 스타일은 프랑스 혁명 때의 엠파이어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Dior는 전통적인 high waist를 따라하지는 않았다. 그는 엠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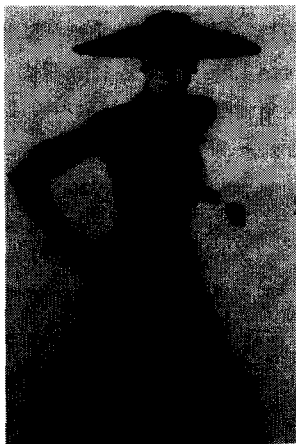
(그림 12) Waier Cooper, 꽃병,  
<The New Look Design in the Fifties>



(그림 13) Arne Jabson, Ant chair, <The New Look>, 1953



(그림 14) Eero Saarien, TWA 터미널 뉴욕 JFK공항, <The New Look>



(그림 15) Christian Dior, Long Line, <The New Look>, 1951

이 스타일의 전형적인 waist line을 피했고 스커트의 New Look 스타일을 넓게 디자인하였다<sup>47)</sup>. 따라서 Long Line 스타일은 여성들에게 인체를 과장되게 보여질 수 있게끔 날씬한 실루엣을 주었다. 길고 가는 형태의 스타일은 50년대 후반에는 Giacometti

의 조각에서 영향을 받아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유기적인 생물의 형태를 디자인하였던 Henning Koppel은 1950년대 후반에 훨씬 더 단순하고 규칙적인 실린더 형태로 전환하였으며 건축과 조명, 유리, 도자기 등 다른 분야에서도 Long Line의 형태가 나타난다<sup>48)</sup>. Gio Ponti는 Super Leggler Chair<그림 16>에서 길고 가느다란 다리로 의자를 길게 보이도록 과장하였다. 또한, Stuart Devlin이 디자인한 커피세트<그림 17>는 전형적인 커피세트보다 가늘고 길게 보여질 수 있게끔 과장되어 가늘고 긴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형태적 스타일의 유사성은 그 시대의 사회의 변화에 따른 독특한 미의식과 가치관이 디자인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Geo Ponti, the superleggera chair, <The New Look>,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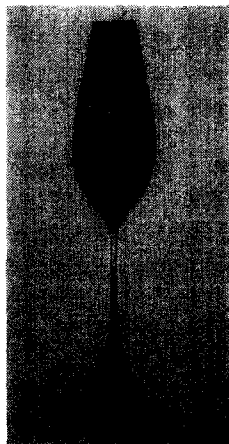


(그림 17) Stuart Devlin, 커피세트, <The New Look>, 1959

Dior가 1953년 발표한 튤립 라인(tulip line)은 <그림 1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hourglass silhouette의 비례를 완전히 뒤집었고 튤립의 꽃 봉우리와 같이 가슴부분을 확대시키고 허리의 라인은 꽃의 줄기와 같이 가늘게 소멸시켰다. 이러한 튤립형태의 라인의 영향은 유리세공 분야에서도 출현하였는데, Nils Landberg가 Orrefors를 위해서 튤립 유리잔(Tulip Glass)<그림 19>을 디자인했다. 이 유리잔은 튤립의 형태로 뽑아낸 보울 부분과 바늘같이 얇은 꽃의 줄기처럼 가늘게 수공되었다. 또한 가구분야에서는 Eero Saarinen가 둥근 받침대까지 벌려져있는 단일한 알루미늄 줄기와 봉우리 모양으로 주조된 흰색의 플라스틱 좌석이 있는 튤립 의자(Tul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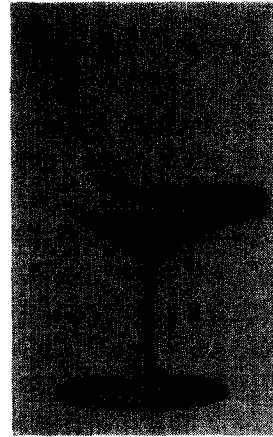


(그림 18) Christian Dior, Tulip Line, <Couture the Great Designers>



(그림 19) Nils Landberg, Tulip Glass, <The New Look>

chair)<그림 20>를 디자인했다. 이러한 New Look의 변화의 물결은 이태리,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에서 196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sup>49)</sup>.



(그림 20) Eero Saarien, Tulip chair, <The New Look>

Christian Dior의 New Look은 대부분의 복식의 표현이 예술의 영향하에서 상호적 접근되어왔던 측면에서, 오히려 복식의 영향하에서 예술에 상호적 영향을 미친 측면에서 중요한 조형적 가치를 지니며, New Look은 그 시대의 독특한 미의식과 시대정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맺음말

과거 복식사를 통해서 복식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환 시대에 발 맞추어 새로운 패션이 전개되고 그 이면에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한 복식변화 중에서 역사적 특정한 사건들에서 보여지는 혁명 및 전후의 급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혁명적 패션이 발생되고 전개된 New fashion의 발생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New fashion의 발생이 어떻게 전개했는지 또는 급속도로 확산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사회 변화와 복식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전개된 여러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혁명적 패션을 일으키게된 변화 요인으로는 혁명 및 전후에 시대적 정신이 새로운 저항정신으로서 표출하는 의상으로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혁명 직후 남녀의 복식 스타일이 자유스러운 간소한 복장으로 지향되었다. 즉 프랑스 혁명의 시민의식이 극적인 혁명적 패션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 반대로 전후 복식 스타일의 변화는 복고적인 귀족적 취향의 New fashion으로 새로운 여성다움의 이미지를 상징하였다. 과거의 복식은 '여성다움(feminity)'으로부터 오랫동안 여성다운 의상의 형태와 라인에 여성의 표현 대상인 여성상을 수동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은 구(舊) 습관과 전통에서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과거의 '여성다움'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적 저항정신의 모더니즘 경향의 신 개념의 능동적인 여성상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성은 혁명 및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어서 혁명적인 패션의 New fashion이 발생되었다.

또한, 혁명적 패션에 나타난 New fashion의 성공적인 전개 이면에는 공통된 시대적인 적절한 타이밍(timing)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보여주었다. 이와 반대로 실패에 대한 이유도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특정의 New fashion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는 다른 New fashion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고찰해보면 어떤 적절한 timing과 New fashion간의 뿌리깊은 연관성 때문인 것이다.

혁명적 패션에 전개된 New fashion의 형태들은 극적으로 바뀌거나 왜곡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수용과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혁명적 패션에 전개된 New fashion의 형태들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한 개혁적인 의상으로서 시대적 저항정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즉 시대적 저항정신이 New fashion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식사를 통해서 New fashion의 형태들은 디자인이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New fashion의 디자인과 시대 정신간에는 밀접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사회의 변동이 심했던 60년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유행이 신흥

부호의 중류층 및 근로 계층에 의해, 특히 젊은이들에 의해 창출되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문화와 그리고 하류계층의 집단들로부터 출현할 수도 있는 스트리트 스타일들은 패션산업에 편입되어 New Look으로 유행되어 판매하는 것이었다. 60년대의 현상은 주로 패션이 더이상 지시(Dictate)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창안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패션의 개혁적인 반영이 되었다. 이러한 반영은 Punk Look 등 개혁적인 변화의 New Look을 통하여 문화 현상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의 상태는 사회가 진보되기 위해서 개혁적인 패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혁명적 패션의 발생에 대해 분석하고 전개된 New Look의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대한 시대 정신간의 상호작용인 새로운 디자인표현으로서 적절한 시간성에 관한 고찰 및 새로운 미래 패션을 창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혁명 및 전후에 나타난 혁명적 패션의 New fashion에 대한 특징을 복식의 문화 현상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혁명적 패션의 New fashion에 대한 새로움을 재인식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 참고문헌

- 1) Brandon Taylor. 김수기·김전송 역.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리얼리즘, 도서출판 시각과 언어, 1998, p.85.
- 2) 이은영, 패션 마케팅, 교문사, 1997, p.96.
- 3)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 복식 37호, 1999, p.107.
- 4) Jernigan·Easterling, 임숙자의 역. 패션머천다이징&마케팅, 교문사, 1997, p.42.
- 5) 1997년 2월에 Imperial War Museum에서 Christian Dior사의 후원으로 "Forties Fashion and the New Look"이라는 특별 전시회가 7개월 동안 개최되었고 이와 함께 Colin Mcdowell은 같은 주제의 책을 출간하였다.
- 6) 전인우, 미술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 복식 9호, 1985, p.65.
- 7) 이순홍, Silhouette의 변천에 관한 고찰, 복식 1호, 1977, p.143.
- 8)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p.280.

- 9) 이순홍, *op. cit.*, p.143.
- 10) 유송옥 · 이은영 · 황선진 공저, *복식 문화*. 교문사, 1996, p.133.
- 11) 이경희 편역, *복식과 패션*, 도서출판 경춘사, 1988, p.193.
- 12) Donald Reynolds, *전혜숙 역, 19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1, p.98.
- 13) 김민자, *op. cit.*, p.108.
- 14) Georgina Howell, *In Vogue*, Penguin Books, 1978, p.1.
- 15) 정홍숙, *op. cit.*, p.368.
- 16) 라사라 교육개발원, *패션의 역사2*, 라미라, 1992, p.189.
- 17)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윤길순 역, *세계 패션사2*, 도서출판 자작아카데미, 1997, p.204.
- 18) James Laver, 이경희 편역, *복식과 패션*, 도서출판 경춘사, 1988, p.263.
- 19) *멋*, 1985, 10, p.176.
- 20) Colin McDowell, *McDowell's Directory of 20th Century Fashion*, Frederick Muller, 1984, pp.34-35.
- 21) 정홍숙, *op. cit.*, p.382.
- 22) 이즘패션산업연구원편저, *Christian Dior*, 도서출판 이즘, 1993, p.30.
- 23)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1987, p.415.
- 24) Colin McDowell, *Forties Fashion and the New Look*, London: Bloomsbury, 1997, pp.172-175.
- 25) Georgina Howell, *op. cit.*, p.167.
- 26)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T. Batsford Ltd, 1992, p.158 *op. cit.*, p.158.
- 27) Patricia Baker, *Fashion of a decade the 1940s*, London: B.T. Batsford Ltd, 1993, p.56.
- 28) Elizabeth Ewing, *op. cit.*, p.155.
- 29) James Laver, 이경희 편역, *op. cit.*, p.271.
- 30) Colin McDowell, *op. cit.*, p.34.
- 31) James Laver, 이경희 편역, *op. cit.*, pp.266-267.
- 32) *Ibid.*, pp.267-268.
- 33) 정현숙 · 양숙희, *하위문화 패션 출처로서의 영국 street style 연구*, *복식* 42호, 1999, p.151.
- 34) *Ibid.*, p.152.
- 35) Elizabeth Ewing, *op. cit.*, p.157.
- 36) 김정은 · 정홍숙, *제 2차 대전후 조형예술과 Christian Dior의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2호, 2000, p.68.
- 37) 권영택 편역,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문예출판사, 1993, pp.54-55.
- 38) Elizabeth Ewing, *op. cit.*, p.159.
- 39) Colin McDowell, *op. cit.*, p.35.
- 40) 정홍숙, *op. cit.*, p.383.
- 41) 이즘패션산업연구원편저, *op. cit.*, p.52.
- 42) 이숙경, *현대디자인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5, p.69.
- 43) 김정은 · 정홍숙, *op. cit.*, p.61.
- 44) 김동욱,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2, pp.67-68.
- 45) Nigel Cawthorne, *The New Look*, Hamlyn, 1996, p.169.
- 46) *Ibid.*, p.170.
- 47) *Ibid.*, p.153.
- 48) 김정은 · 정홍숙, *op. cit.*, pp.66-67.
- 49) Nigel Cawthorne, *op. cit.*, p.172.